

## 【 주간이슈 】

## 퇴직연금제도 시행 3년에 대한 종합평가 및 과제

선임연구위원 류건식

연구원 김동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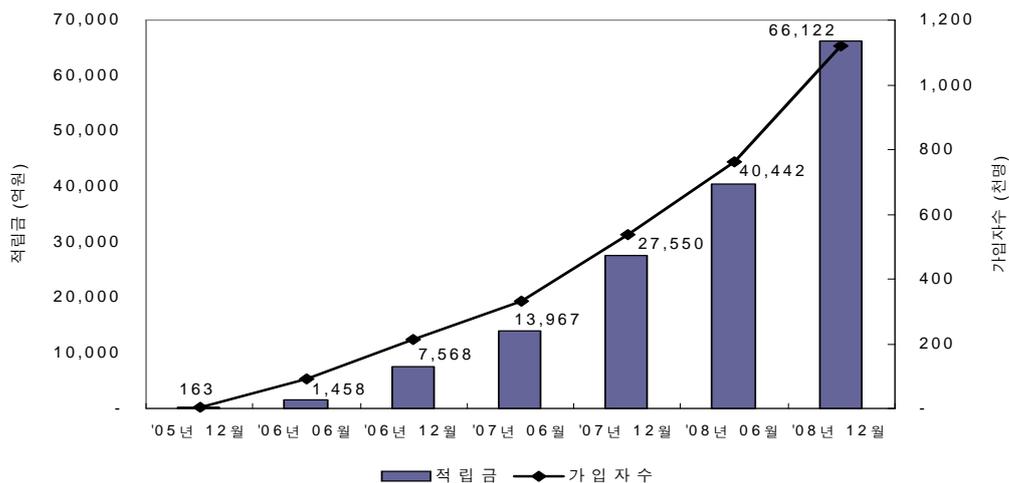
- 고령화 진전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퇴직연금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재, 퇴직연금제 시행 3년을 종합평가한 결과, 미국 등에 비해 근로자의 인식부족, 연금세제혜택 미흡 등으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저조한 실정임.
- 2008년 12월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가입률은 10%로 나타나 미국 56%, 캐나다 65% 등에 비해 저조한 퇴직연금가입률 실적을 보임.
  - 퇴직연금시장은 DB형 위주로 재편되는 추세이며, 안정형 자산인 원리금보장형 상품중심의 자산운용과 소기업중심의 퇴직연금가입 경향을 보임.
  - 현재 DB형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영세한 소기업중심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은행권이 보험권을 추월하는 양상을 보고 있으나, 퇴직보험 유예기간이후에는 은행권과 보험권간 또 다른 경쟁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노후소득보장기능으로서 퇴직연금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과감한 연금세제 혜택부여,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 등으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성이 존재함.
- 또한 양적규제에서 질적규제(자율규제)로 자산운용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폭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음.(수탁자책임, 수급권보호 등과 같은 규제완화 보완조치 전제)
  -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중간정산제 완전폐지 등을 명문화하고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제 도입, 미국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다양성 확보가 요구됨.
- 보험회사의 경우, 개인과 중소기업의 DC형 선호도 증대를 고려하여 수익성위주의 상품개발과 자산운용능력 향상 등으로 DC형 퇴직연금시장을 적극 공략한다고 하는 자세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됨.
- 대기업은 보험권중심의 DB형 퇴직연금 선호, 중소기업은 은행중심의 DC형 퇴직연금 선호, 소기업은 은행중심의 IRA 선호현상이 나타나 보험권은 중소기업에 보다 초점을 맞춘 마케팅 전략이 요구됨.
  - 즉 일괄서비스체제에 의한 서비스 강화로 타금융권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극 구사할 필요성이 존재함.

본고는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무관한 작성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1. 퇴직연금 시장의 현황과 특징

- 퇴직연금제도 시행 3년간(2005.12 ~ 2008.12), 퇴직연금 적립규모는 405배 증가하고, 전체 5인 이상 사업장의 10%인 50,246개소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규모면에서는 양적 확대가 이루어짐.
- 이처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와 퇴직연금 가입률면에서 뚜렷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퇴직연금가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즉 영국은 51%, 미국은 56%, 캐나다는 65%의 퇴직연금가입률을 보이고 있어 50%이상의 높은 퇴직연금 가입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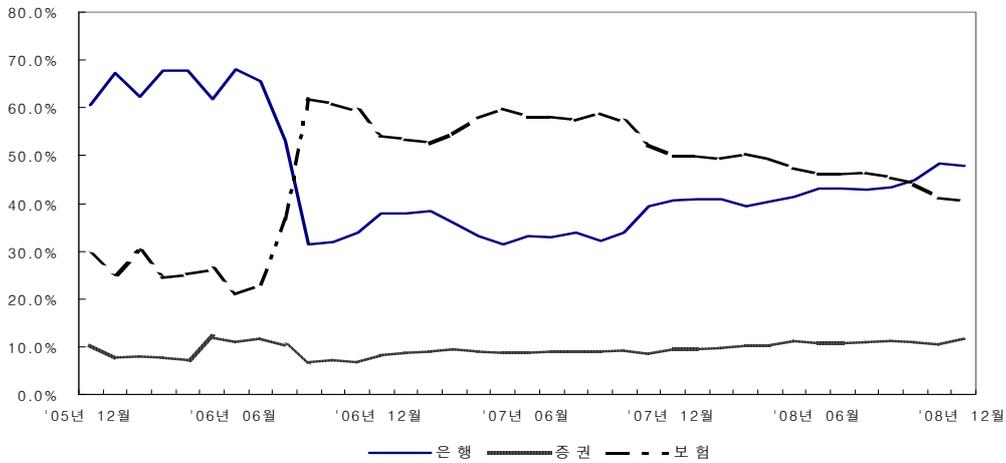
<그림 1> 퇴직연금 적립금 및 가입자수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에 의거 작성

- 금융권별 적립금 점유율(2008년 12월 기준)은 은행권 47.8%, 보험권 40.4% 증권사 11.8%로 나타나 은행권이 보험권을 추월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 보험권의 적립금 점유율은 2006년 9월 61.7%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은행권은 2006년 9월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08년 10월 이후 보험권의 적립금 점유율을 추월함.
- 증권사는 10%대의 적립금 점유율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은행권, 보험권에 비해 퇴직연금시장에서 답보상태를 보임.

<그림 2> 금융권별 적립금 점유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에 의거 작성

□ 또한 기업규모 측면에서는 소기업 중심, 제도유형별 측면에서는 IRA 기업형 및 DC형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퇴직연금계약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계약체결 건수는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순으로, 가입건수는 DB형, DC형, IRA 기업형 순으로 나타나 주로 DC형 및 IRA기업형 중심으로 계약 체결되고 있음.
- 대기업의 71.8%인 436개 기업의 경우 DB형으로 계약을 체결한, 반면 소기업의 49.0%인 18,648개의 기업이 IRA기업형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사업장 규모별 계약체결 성과

(단위: 건, %)

사업장 규모	DB	DC	IRA 기업형	합계
소기업 (20인 이하)	6578(17.3)	12,811(33.7)	18,648(49.0)	38,037
중기업 (20 ~ 300인)	5147(51.1)	4923(48.9)	-	10,070
대기업 (300인 이상)	436(71.8)	171(28.2)	-	607
합계	12,161(25.0)	17,905(36.8)	18,648(38.3)	48,714

주: 1) 2008년 12월 기준임.

2) 운용관리계약 기준이며 복수의 운용관리계약에 따른 중복계약 1,062건이 포함된 수치임.

3) ( ) 안의 수치는 사업장별 비중을 나타냄.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에 의거 작성

□ 퇴직연금 제도 형태별 적립금추이를 보면 근로자 및 기업은 DC형 퇴직연금보다 안정적 연금급부 보장차원에서 DB형 퇴직연금을 선호함으로써 DB형 위주로 퇴직연금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퇴직연금 도입 초기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2006년 8월 이후 DB형 퇴직연금 위주로 퇴직연금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이에 반해 IRA의 적립금 점유율은 10% 미만에 그치고 있어, 퇴직연금시장에서 뚜렷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표 2> 퇴직연금 적립금 추이

(단위: 억원, %)

기간	DB		DC		IRA		전체 적립금
	적립금	점유율	적립금	점유율	적립금	점유율	
'05년 12월	64	39.0	61	37.2	39	23.7	163
'06년 12월	5,020	66.3	2,006	26.5	541	7.1	7,568
'07년 12월	18,276	66.3	7,033	25.5	2,242	8.1	27,550
'08년 12월	45,818	69.3	16,141	24.4	4,162	6.3	66,122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에 의거 작성

□ 퇴직연금 적립금은 원리금보장형상품이 5조 4,225억원(82.0%), 실적배당형상품이 7,588억원(11.5%)으로 나타나 대부분 원리금보장형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특징을 보임.

- 원리금 보장상품과 실적 배당 상품 내에서도 예·적금 및 채권형펀드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안정성 위주의 자산운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중심의 자산운용은 신탁제도의 미발달, 연금자산규제의 강화, 고리스크상품 회피성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연금자산 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고리스크상품의 안정적 수익률제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적배당형상품의 점유율 증가가 예상됨,

<표 3> 퇴직연금 형태별 적립금 운용

(단위: 억원, %)

	구분	DB	DC	IRA 기업형	IRA 개인형	합계
원리금 보장	예적금	19,920	7,268	2,185	722	30,095
	금리확정형보험	17,569	794	26	120	18,510
	금리연동형보험	2,182	1,837	28	185	4,232
	국공채	30	16	-	-	46
	원리금보장ELS	1,125	197	-	20	1,342
원리금보장 합계		40,826	10,113	2,239	1,047	54,225
실적 배당	주식형펀드	220	-	-	-	220
	혼합형펀드	81	-	-	-	81
	채권형펀드	1,479	4,297	365	93	6,233
	기타펀드	80	76	0	0	156
	실적배당형 보험	49	513	5	330	897
실적배당 합계		1,908	4,886	371	423	7,588
기타		3,083	1,143	78	5	4,309
총합		45,818	16,141	2,688	1,474	66,122

주: 1)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채권형펀드는 주식의 비중이 각각 60% 이상, 40~60%, 0~40%임.

2) 기타는 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운용대기자금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에 의거 작성

## 2. 금융기관별 퇴직연금 운용 성과

### 가. 퇴직연금 계약 체결 측면

□ 금융권별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의 적립금 규모 총액은 약 6조 6,12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DB형 퇴직연금은 69.3%, DC형 퇴직연금은 24.4%, IRA 기업형은 4.1%, 개인형은 2.2%로 나타남.

○ 운용관리계약의 적립금 비중을 금융권별로 분류하는 경우, 은행, 생보, 증권, 손보 순으로 나타나 운용관리계약은 보험권중심이 아닌 은행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조사됨.

- 퇴직연금제도 시행 1년(2006년 12월)에는 보험권 운용관리계약 적립금 규모가 은행권 운용관리계약 적립금 규모를 추월하였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큼.
- 특히 전 금융권이 DB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계약 적립금 규모가 DC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계약 적립금 규모를 월등히 추월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표 4> 금융권별 운용관리계약 체결 성과

(단위: 억원, %)

구분	DB		DC		IRA 기업형		IRA 개인형		전체
	적립금	비중	적립금	비중	적립금	비중	적립금	비중	적립금
은행	19,052	60.2	9,165	29.0	2,621	8.3	791	2.5	31,629
증권	4,218	54.0	3,533	45.3	8	0.1	45	0.6	7,805
생보	19,003	84.7	2,754	12.3	50	0.2	633	2.8	22,440
손보	3,546	83.5	689	16.2	9	0.2	5	0.1	4,248
전체	45,818	69.3	16,141	24.4	2688	4.1	1474	2.2	66,122

주: 1) 2008년 12월 기준임.  
 2) 비중은 해당 업권내 연금형태별 점유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에 의거 작성

□ 금융권별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의 적립금 규모를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으로 구분하여 보면 보험계약에 비해 신탁계약에 의한 자산관리계약의 적립금 규모 비중이 12.4%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금융권별 자산관리계약 체결 성과

(단위: 억원, %)

구분		DB		DC		IRA 기업형		IRA 개인형		전체	
		적립금	비중 <sup>1)</sup>	적립금	비중 <sup>1)</sup>	적립금	비중 <sup>1)</sup>	적립금	비중 <sup>1)</sup>	적립금	비중 <sup>2)</sup>
신탁 계약	은행	19,585	60.8	9,193	28.6	2,621	8.1	791	2.5	32,190	48.6
	증권	5,018	58.2	3,549	41.2	8	0.1	47	0.5	8,622	13.0
	생보	1,233	86.9	185	13.0	0	0.0	1	0.1	1,419	2.1
	계	25,836	61.2	12,927	30.6	2,629	6.2	839	2.0	42,231	63.8
보험 계약	생보	16,719	83.9	2,522	12.7	48	0.2	632	3.2	19,922	30.1
	손보	3,380	83.2	672	16.5	9	0.2	3	0.1	4,064	6.1
	계	20,098	83.8	3,195	13.3	57	0.2	635	2.6	23,985	36.2
전체		45,934	69.4	16,122	24.3	2,686	4.1	1,474	2.2	66,217	100

주: 1) 2008년 12월 기준임.  
 2) 비중<sup>1)</sup>은 해당 업권내 연금형태별 점유율이며, 비중<sup>2)</sup>은 업권별 비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에 의거 작성

- 즉, 신탁계약으로 체결된 적립금 규모는 4조 2,231억원인 반면 보험계약에 의한 적립금 규모는 2조 3,985억원으로 나타나, 신탁계약의 비중이 보험계약의 비중
- 또한 연금제도 형태별로 볼 때 DC형 퇴직연금과 IRA 기업형은 신탁계약의 비중이 보험계약의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에 반해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에 의한 적립금 규모가 각각 2조 5,836억원(56%)과 2조 98억원(44%)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나. 퇴직연금 전환 측면

□ 적립금 총액중 전환금액(제도전환분)이 차지하는 비율인 퇴직연금 전환비중(=제도 전환분/적립금액)은 48.0%인 것으로 나타나 적립금 총액 대비 50%수준에도 미달하고 있는 실정임.

<표 6> 퇴직연금 전환 성과 (전환비중기준)

(단위: 억원, %)

구분	DB	DC	IRA 기업형	IRA 개인형	합계
정기납입분	24,562 (53.6)	15,366 (95.2)	2,153 (80.1)	3 (0.2)	42,084 (63.6)
가입자추가부담분	-	296 (1.8)	488 (18.1)	0 (0.0)	784 (1.2)
제도전환분	24,973 (54.5)	3,458 (21.4)	900 (33.5)	2,416 (163.8)	31,747 (48.0)
적립금운용손익	1,531 (3.3)	393 (24)	93 (3.5)	34 (2.3)	2,052 (3.1)
급부지급분	5,248 (11.5)	3,372 (20.9)	947 (35.2)	979 (66.4)	10,545 (15.9)
적립금총계	45,818	16,141	2,688	1,475	66,122

주: 1) 2008년 12월 기준임

2) 비중은 연금형태별 적립금총계 대비 비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에 의거 작성

□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로 보면 DC형 퇴직연금의 퇴직연금 전환비중은 21.4%, DB형 퇴직연금의 퇴직연금 전환비중은 54.5%로 나타나 DC형에 비해 DB형 퇴직연금의 전환비중이 2배이상 높게 나타남.

- 즉 DB형(54.5%), IRA 기업형(33.5%), DC형(21.4%) 순으로 나타나 전환금액 및 전환비중 모두 DB형 퇴직연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DC형 퇴직연금 및 IRA 기업형의 경우처럼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신규 퇴직연금제도 가입만 이루어지는 경우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측면

□ 은행권 및 증권사, 보험권 모두 원리금보장형 상품중심으로 적립금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임.

○ 보험권은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적립금규모가 각각 2조 4,914억원(95.5%), 1,171억원(4.5%)으로 원리금보장형상품 중심의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행권 또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비중이 82.8%로 높게 나타남.

<표 7> 금융권별 적립금 운용 성과

(단위: 억원, %)

	구분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계
원리금 보장	예적금	26,125	1,693	1,933	344	30,095
	금리확정형보험	39	80	15,783	2,607	18,510
	금리연동형보험	14	-	3,432	787	4,232
	국공채	-	46	-	-	46
	원리금보장ELS	-	1,313	29	-	1,342
원리금보장 합계		26,178	3,132	21,177	3,737	54,225
실적 배당	주식형펀드	163	49	7	1	220
	혼합형펀드	66	14	-	1	81
	채권형펀드	3,349	2,620	243	22	6,233
	기타펀드	9	147	-	-	156
	실적배당형 보험	-	-	759	138	897
실적배당 합계		3,587	2,830	1,009	162	7,588
기타		1,863	1,843	254	349	4,309
총합		31,629	7,805	22,440	4,248	66,122

주: 2008년 12월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에 의거 작성

- 증권사는 원리금보장형상품과 실적배당형상품의 적립금운용 규모가 각각 3,132억원(40.1%), 2,830억원(36.3%)으로 나타남.
- 실적배당형 상품의 적립금 운용 비중은 보험권 <은행권 <증권사 순으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증권사는 실적배당형 상품중심의 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증권사의 실적배당형 상품중심 운용은 연금자산운용 능력에 따른 수익률제고 등에 기인한 바가 큼
- 향후 운용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해소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적립금 운용패턴은 많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3. 종합평가 및 과제

#### 가. 종합평가

-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경과되었으나, 근로자 및 기업의 퇴직연금 인식부족, 엄격한 퇴직연금자산 운용규제, 연금세제혜택 부족 등으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및 가입자수면에서 볼 때 외형적으로는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및 기업의 인식부족과 더불어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 부족 등에 기인한 바가 큼.
- 퇴직연금시장은 선진국과 달리 DB형 퇴직연금시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DB형 퇴직연금시장은 보험권과 은행권간의 경쟁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IRA는 은행권위주의 경쟁양상이, DC형 퇴직연금은 은행과 증권사간의 경쟁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DC형 퇴직연금 및 IRA에서의 보험회사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수익률 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증권사는 은행권 및 보험권과 달리 DC형 퇴직연금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특징을 보임.

- 퇴직연금계약 대부분이 DB형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영세한 중소기업중심으로 이루어져 은행권이 보험권을 추월하는 양상을 보고 있지만, 퇴직보험 유예기간(2010년 12월) 이후에 보험권이 은행권을 추월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실적배당형 상품보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근로자의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 니즈에 부합한 다양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도입·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임.

## 나. 향후과제

### <법적·제도적 측면>

-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를 위해 먼저 미국 및 호주 수준을 감안한 연금세제 혜택부여 및 미국식 연금지급보증제도(PBGC) 도입 등이 요구됨.
  - 미국은 2007년 기준으로 1만 5,500달러까지 세제혜택 부여, 호주는 퇴직연금기여액에 대해 최저세율(15%)을 적용함.
  - 선진국들은 대체로 기업도산시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에 의해 연금지급을 강제화하고 있음.
- 둘째, 퇴직연금자산 운용규제를 현행 양적규제방식에서 질적 규제(자율규제)방식으로 전환하여 근로자 및 기업의 운용상품 선택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수탁자책임의 강화, 수급권보호 등과 같은 규제완화 보완조치 필요
- 셋째, 상해 및 질병 등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중간정산제 완전폐지 등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존재함.
  - 우리나라는 중도인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중산정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한정하고 있음.
  - 미국 등은 사망, 상해퇴직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제 인정(임의중도인출시 10% 패널티세 부과)
- 넷째,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더불어 미국 등과 같이 다양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예: 이익분배형, 주식분배형, ESOP, Money Purchase Plan 등)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다양성 확보가 요구됨.

### <보험회사 대응측면>

- 보험회사는 소규모기업 및 개인의 DC형 퇴직연금 선호도 증대를 고려, DC형 퇴직연금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한 수익성위주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전문가 양성으로 DC형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됨.
  - 다만 보험권의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은행권의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비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보험권은 근로자의 니즈에 부합한 특화된 원리금보장형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존재함.
  
- 대기업은 보험권중심의 DB형 퇴직연금 선호, 중기업은 은행 중심의 DC형 퇴직연금 선호, 소기업은 은행 중심의 IRA 선호현상이 뚜렷하여 보험권은 보다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 전략이 요구됨.
  - 마이일의 보험회사처럼 일괄서비스체제에 의한 서비스 강화(맞춤형 서비스 제공)로 타금융권과 차별화된 마케팅을 중소기업 대상으로 구사할 필요성이 있음  
KiRi.